

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컨설팅

6개 시·군에 '전문가 자문단' 구성... 애로·쟁점사항 해결·세부 시행계획 논의·대안 제시

농생명산업과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가 지역별 컨설팅에 나서 사업의 성과가 기대된다.

8일 전북도는 남원시를 포함한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해 6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허브식품(남원), 홍삼·한방식품(진안), 천마식품(무주), 장수식품(장수), 치즈식품(임실), 건강장수식품(순창) 등으로 구성된 식품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6개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728억원 규모로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만 약 147억원(국비 58억원, 도비 42억원, 시·군비 24억원, 자부담 23억원) 규모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해 R&D·생산·가공·유통은 물론 홍보와 체험관광까지 연계시켜 식품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단 수익화 방안 모색에 대한 컨설팅 후 사업단 출자 유망사업법인을 설립하고 유통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남원시와, 개발한 건강식단의 활용 방안을 컨설팅을 통해 체험프로그램과

지 연결시켜 추진한 순창군에서 진행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분야별 전문가(6명)와 도·시·군·사업단, 클러스터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애로·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과 세부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남원은 '남원 허브제품 유통연합회' 설립 방안과 '허브제품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지고 진안은 '진안 원료삼 수매와 운영 방안', 무주는 천마사업단 자

립화 방안과 태권도원·반디랜드 등과 연계한 천마 홍보방안 등의 컨설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장수군은 도심형 농가식당 및 콜콜푸드 매장 설립 방안을 자문받고, 임실은 목장형 유기공공장 가공생산 규모 확대 및 노후 설비 개보수 지원 방안, 순창은 농산물 홍보와 각종 국가 연구과제 공모 시 선행 연구실적 활용방안을 자문받을 예정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동부권 지역의 농식품산업 특화 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도, '탄소산업혁신상' 후보자 모집

9월8일까지 탄소소재·융복합 공정기술 분야 대상

전북도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는 국제탄소페스티벌 행사를 기념해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8일까지 100일간 '탄소산업혁신상'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탄소산업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큰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분야는 자동차·기계, 항공,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스포츠·레저, 건축·토목, 소재·공정기술 등 탄소소재 및 융복합 공정기술 분야이며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추천대상은 후보자 추천일 기준으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분야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

체, 기업체 등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도 홈페이지(www.jonbuk.go.kr)의 고시·공고란 또는 제11회 국제탄소페스티벌 행사 메인홈페이지(www.icf.kr)에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 등과 함께 전북도청 탄소산업과(063-280-2151)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9월 하순에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수상자 시상은 10월 5일 제11회 국제탄소페스티벌 행사 개최시 때 진행된다. /정영수 기자

국민권익위 '구급차 과속 불가피했다면 과태료 면제'

구급차가 응급 환자 이송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도,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8일 민간 구급차 운전자가 이 모씨가 응급 환자 이송 중 과속 주행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과태료를 취소할 것을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기 때문에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의 신청을 냈다.

경찰은 이후 이씨가 제출한 이의 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병원 측에 의료 기록 제출 협조 요청을 했으나, 병원 측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당시 이씨의 과속 주행이 응급 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박용주 기자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선포식.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8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2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양희(왼쪽 네번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성준(왼쪽 여섯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도, 친환경농업 확대·발전 '청신호'

올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면적 작년대비 6.5% ↑ ... 다양한 지원책 때문 분석

전북도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순항 중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저농약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사업(2016년 현재 3,055ha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2016년 현재 150건 지원),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2016년 현재 100개 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

성사업,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 소비자 체험형 관측홍보 사업(2016년 현재 4,445명) 등이다.

앞으로도 도는 친환경농업을 알리고 소비자 신뢰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판매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유기농협회와 친환경농업연합회가 친환경 농업의 재배기술과 유통정보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와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수 기자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공사 공정률 21%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8일 새만금지역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동서2축 도로(새만금방조제~계집대진봉면, 16.5km) 건설 공사가 5월 말 기준 공정률 21%를 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의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서해안의 새만금과 동해안의 함양을 잇는 동서회합의 도로로서, 2015년 6월 공사를 착공해 2020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30% 공정이 목표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목표치 달성은 충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조기 개통을 목표로 속도 있는 공정을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서2축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접근성이 향상되어 용지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품질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기간 내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공구 현장상황실에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16년도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여름철 재해예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영수 기자

올 '안전신문고' 참여건수 개통시보다 23배 ↑

올해 국민 안전신고 참여건수는 374건으로 2014년 안전신문고 개통 당시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가안전대진단이 마무리된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12만1895건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개통 첫 해인 2014년 하루평균 16건에 불과한 안전신고가 지난해 203건, 올해에는 374건(84%증)으로 증가했다.

신고된 12만1895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만4369건(28.4%), 서울시 1만5930건(13.2%), 부산시 8732건(7.2%) 순으로 많았다. 도로파손 등 시설안전 분야가 5만1049건(42.2%), 교통안

전 분야 3만2495건(26.9%), 생활안전 분야 1만1977건(9.9%) 순이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30)에는 일평균 524건(총 3만9799건)으로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일평균 201건(총 1만4718건) 대비 16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중 약 1만7705건이 시설물 개보수에 관련된 것으로 약 258억1700만원의 비용이 투자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8월부터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 선택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도 안전신고 실적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규칙개정안'을 개정하고 있다.

/정영수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명운행(유치부, 조동부)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폭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